

# TV드라마 <주몽>에 나타난 영웅 신화의 형상화 방법

배선에\*

## <차례>

1. 머리말
2. 영웅 신화 속 '주몽'의 현실적 형상화
3. 장르 혼용을 통한 신화의 TV드라마 서사 구축
4. 맺음말-영웅 신화를 호출한 대중과 TV드라마의 결합

## <국문 초록>

TV드라마 <주몽>은 '주몽신화' 속 건국 영웅을 호출하여 현실의 문제를 벗어나고자 하는 대중들의 욕망을 기반으로 하여 그것을 TV드라마라는 장르에 효과적으로 결합한 작품이다. 특히 신화의 신성함 대신 현실성을 부여하기 위해 서사와 이미지형성의 측면에서 '주몽'을 현대화하고 있는데, 인간적 면모를 강조하는 주몽의 성장 서사는 시청자들의 동일시 현상을 이끌어 내어 영웅에 대한 거리감을 해소함과 동시에 친밀감을 형성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카메라 촬영 기법과 머리 모양 등으로 구축된 주몽의 이미지는 영웅으로 성장하는 주몽의 활약을 역동적으로 담고 있어 시청자들에게 강한 현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서사 상에 나타난 다양한 현대 드라마의 모티프들 역시 시청자들의 친밀감을 유발하여 높은 시청률을 견지하였지만, 소서노로 대표되는 강한 여성캐릭터의 경우 신화의 논리를 그대로 이어받은 작품의 속성 상 성격구축의 균열을 일으키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대중들의 욕망을 적극적으로 충족시키는 대리자를 자처한 TV드라마의 장르특성 상 <주몽>은 현실의 많은 문제들에 대한 돌파구를 염원하는 대중들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품이다.

주제어 : TV드라마, <주몽>, 역사드라마, '주몽신화', 주몽, 영웅의 성장 서사, 소서노, 강한 여성캐릭터

\* 광운대 강사

## 1. 머리말

역사는 TV드라마의 오랜 소재이다. 일반적으로 1964년 KBS에서 7월에 방송된 <국토만리>(박신민 극본, 김재형 연출)를 역사 소재 TV드라마의 효시로 꼽고 있는데,<sup>1)</sup>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제작됨과 더불어 근래에는 오히려 모든 드라마의 열풍을 이끄는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역사 소재 드라마는 <조선왕조 오백년>(MBC, 1983~1990)을 중심으로 진행된 조선시대의 이야기에서 벗어나 더 이전의 역사에 주목하고 있는데, <태조 왕건>(KBS, 2000~2002)과 <무인시대>(KBS, 2003~2004), <신돈>(MBC, 2005~2006)으로 대표되는 고려 시대, <삼국기>(KBS, 1992)와 <해신>(KBS, 2004~2005), <서동요>(SBS, 2005~2006) 등에서 중심으로 삼은 삼국시대가 역사드라마의 소재 확장에 해당된다. 이러한 흐름의 연장에서 이제는 삼국시대보다 더 먼 시대, 즉 고구려의 건국이나 가야, 그리고 단군시대<sup>2)</sup>를 다루는 등 그 확장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시대보다 더 먼 과거에 대한 호출 현상은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역사소재 드라마, 즉 역사드라마<sup>3)</sup>의 함의가 시대 상황에 따

1) 오명환, 『텔레비전 드라마 사회학』, 나남출판사, 1994. 169면.

2) SBS의 2007년 드라마 기획에는 가야시대의 생활을 다루는 <가야>와 함께 단군과 고조선을 중심으로 하는 <단군>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단군>은, 한류스타 배용준을 홍보 전략으로 제시하며 현재 제작 중인 MBC의 <태왕사신기>와 경쟁체제를 구축할 전망이다.

『2007 SBS 대기획』, [http://sbsnow.sbs.co.kr/news/now\\_main\\_news.jsp](http://sbsnow.sbs.co.kr/news/now_main_news.jsp) 참고.

3) 본고에서 사용하는 역사드라마에 대한 정의는 “과거 두 세대를 기준으로 역사적 시간과 공간(배경)을 다루며, 역사적 사실과 더불어 설화, 전설, 고전소설 등 역사적 허구들을 드라마화한 것”이라는 주창윤의 정의(주창윤, 『텔레비전 드라마: 장르·미학·해독』, 문경, 2005. 44면)를 따르기로 한다. 소재가 되는 사건, 시간적 범위 등 역사드라마의 범주설정에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고구려 건국을 다루는 <주몽>을 대상으로 한 본고에서 역사드라마의 개념 정립에 집

라 달라졌기 때문이다. 조선시대를 다루던 과거의 역사드라마는 역사를 호출하는 방식이 “드라마를 만든다”는 입장보다는 ‘역사를 재현한다’는 쪽<sup>4)</sup>으로 주로 정사(正史)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들을 드라마로 만들어 시청각적 이야기로 새로 꾸며내는 것이었다. 물론 그렇게 호출되는 역사는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현실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거나 당대 대중들이 욕망하는 것을 대변하기 위해 취사선택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이전의 역사드라마 제작 태도는 ‘역사책의 드라마화’로, 드라마의 ‘허구성’보다는 역사의 ‘사실’에 보다 충실하려 하였던 것이다. 역사드라마가 허구라는 것을 명백히 인지하면서도 그 속에 비취지는 역사를 사실 그대로 믿으려 하는 시청자들의 태도를 염두에 두면서 제작자들은 가능한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는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사료가 풍부하며 시청자들에게 익숙한 조선 시대의 권력투쟁과 영웅적 인물들은 손쉽게 역사드라마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드라마 제작의 태도는 몇몇 작품의 대중적 성공을 기반으로 그 자체의 장르적 변화를 꾀하며 이전과는 다른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만화를 원작으로 한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폐인현상’을 일으킬 만큼 큰 인기를 얻은 <조선여형사 다모>(MBC, 2003)와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등의 한류바람을 주도하고 있는 <대장금>(MBC, 2003~2004)의 성공은 역사드라마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이끈 대표적인 작품이다. 두 작품의 공통점은 무엇보다 역사적 ‘사실’보다는 작가의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허구’가 중심에 서있다는 점이며, 거기에 허구적 상상이 가미되면서 현대 드라마의 다양한 장르들을 역사드라마에 접목시켜<sup>5)</sup> 권력 중심의 과거 작품

중하는 것은 논의 전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비교적 체계적이며 필자의 관점에 부합하는 역사드라마 정의를 따르기로 한 것이다.

4) 최상식, 백제 외교사 부각에 애쓴 드라마-〈삼국기〉, 『텔레비전 드라마 사회학』(오명환), 나남출판사, 1994. 185면.

5) 최근 역사드라마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장르 자체의 내재적 발전과 함께 다른 드라마 장르들의 관습들을 혼용하여 대중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주창윤, 앞

들과는 확실하게 차이를 두고 있다.

여기에는 역사드라마를 대하는 시청자들의 태도변화도 한 몫을 하는데, 역사를 다루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역사적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어도 역사드라마에서만큼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교과서적인 재현, 즉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철저한 고증에 입각하여 시청각적으로 이미지화하는 것을 더 이상 바라지 않게 되었다. 이왕이면 과거의 이야기이지만 보다 덜 알려진 낯선 것들을 다양하게 보여주거나, 현대적 감수성과 맞닿아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활용한 ‘그럴듯하게 꾸며진 과거의 이야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변모되었다.

이렇듯 역사드라마 내부적 변화와 그것을 바라는 시청자들의 욕구가 맞물리면서 최근 역사드라마는 사실의 재현보다는 상상력을 중심으로 현대적 감수성을 자유로이 가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그 기획의 출발은 역시 대상 시기의 확장으로, 사료가 거의 없고 학계에서의 논의도 정립되지 않은 먼 과거를 선택하여 드라마의 허구성을 자유롭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청자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조선시대는 현대적 감수성을 대변하기에도, 역사드라마의 다양한 장르변용을 허용하기에도 지나치게 가까운 시기이며 많은 사료들로 설명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불멸의 이순신>(KBS, 2004~2005)처럼 사건이나 인물들의 새로운 재해석<sup>6)</sup> 정도로만 한정될 수밖에 없는 성격을 지닌다. 최근 공중파 방송국 3사에서 모두 고구려를 대상으로 하는 드라마가 방송 중인 것도 이러한 역사드라마 제작 변화의 맥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의 책, 52~58면.

6) 윤진현은 <불멸의 이순신>에 대한 연구에서 새롭게 호출된 이순신의 모습이 국가적 영웅과는 다른 21세기적 영웅, 즉 ‘인간 이순신’으로, “구원자 이순신보다는 국민 개개인의 재능과 역할을 이끌어내는 새로운 지도자를 열망하는” 21세기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윤진현, 『이순신과 영웅의 쇄신-KBS 대하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14호, 대중서사학회, 2005.12, 35면.

공중과 방송국 3사는 각각 <주몽>(MBC, 2006.5.15.~2007.3.6),<sup>7)</sup> <연개소문>(SBS, 2006.7.8.~), <대조영>(KBS, 2006.9.16.~)을 방송하면서 고구려 건국과 그로부터 7세기 후인 고구려 멸망, 그리고 이어지는 발해의 건국을 다루고 있어 대중들에게 막연한 동경이었던 고구려의 재발견을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내고 있다.<sup>8)</sup>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고구려라는 공통적 소재의 역사드라마가 방송되었지만 시청자들은 세 작품 중 가장 먼저 방송되었고 또 가장 먼 과거를 다루고 있는 <주몽>에 열광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물론 <연개소문>이나 <대조영>의 주인공이 성인연기자로 바뀌면서 어느 정도 시청률이 올라가고 있지만 가히 <대장금> 이후 국민드라마로 불려 지며 50%의 시청률에 육박하는 <주몽>의 인기는 따라잡기 어렵다. 그렇다면 다른 두 작품에 비해 <주몽>의 어떤 점이 시청자들의 호응을 불러일으킨 것일까? 고구려를 소재로 하고 모두 영웅을 다루고 있음에도 다른 두 작품이 획득하지 못한 대중성을 <주몽>은 어떠한 방식으로 성취하고 있는 것인가? 이 글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 놓여 있다.

7) <주몽>은 MBC 창사45주년 특별기획드라마로, 2006년 5월 15일부터 2007년 3월 6일까지 총 81부가 방송되었다. 기획은 정운현, 제작에 김광일, 김태원, 극본은 최완규, 정형수, 연출은 이주환, 김근홍이 맡았다. 특히 작가 최완규는 <허준>으로, 정형수는 <조선여형사 다모>를 통해 명성을 얻은 작가이기 때문에 두 작가의 공동 집필도 화제가 되었다. 연장방송이 확정된 후 62회부터는 극본에 정진욱이 추가되었다.

8) 세 작품 모두 기획의도에서 ‘고구려’를 강조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 민족이 가장 아름다웠던 시간’, ‘우리 민족이 세계의 중심이었던 시간’ (중략) 중국 제국을 무릎 꿇리고 두려움 없이 세계와 맞섰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승리의 시간”( <주몽>), “우리 민족의 저력과 용지를 가장 잘 대변했던 초강대국”( <연개소문>), “대제국 고구려”( <대조영>) 등으로 한결같이 강한 국가의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것은 실제 고구려가 그러했던 것과는 별개로 광활한 제국의 이미지로서의 고구려를 동경하는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해당 작품에 대한 관심을 끄는 효과를 창출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사회적, 국제적 문제가 된 중국의 ‘동북공정’과 결합되면서 드라마와 사회문제 간의 시너지 현상을 불러일으켜 고구려에 대한 대중적 담론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주몽>이 다른 두 작품과 가장 변별되는 것은 고구려 건국신화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역사드라마가 역사를 소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출발점은 역사를 어떠한 태도와 의도로 현재에 호출해내는가를 살펴보는 것으로, 역사적 사실의 확인과 그것을 근거로 드라마 속에서의 변이와 거리에 대한 논의전개가 일반적이다. 이에 따른다면 <주몽>에 대한 연구는 고구려 건국이라는 역사의 확인과 검증으로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고구려 건국을 포함한 우리나라 고대사에 대한 역사학계의 연구는 실증적 자료가 부족한 데다 많은 사료들이 국내에 없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하고 연구되어 여러 논란을 안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라 고대사를 다루고 있는 역사서마다 서술된 내용이 다르다. 또한 이 시기가 건국신화와 결부되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허구적으로 신성함이 부각되어 구성된 신화를 연구의 기반으로 삼아 그것을 분석하면서 실제 역사를 재구성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주몽>이 다루는 역사는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일차적으로 정리된 정사를 확정짓기 어려운 시기로, 구체적이며 실증적인 역사의 시대라기보다는 ‘신화의 시대’에 해당한다. 많은 대중들이 고구려와 주몽 신화를 함께 떠올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며, 이에 따라 TV드라마 <주몽>은 역사와 허구의 결합으로 분석하는 것보다 상상력의 산물인 신화를 현실적으로 구현하여 대중들에게 강한 현실성을 심어주는 고유한 방법들의 분석이 작품의 특성을 살펴보는 데에 보다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신화로 기억되는 고구려의 건국과 주몽, 그것의 신성성을 제거하면서 또 다른 상상력과 허구를 통해 강한 리얼리티를 확보하여 대중들을 설득하는 방법의 확립. 이것이 TV드라마 <주몽>을 바라보는 이 글의 기본적인 태도이자 분석 방법이다.

방송되는 내내 40% 이상의 시청률을 견지한 <주몽>의 성공은 무엇보다 ‘주몽’이라는 인물의 형상화와 성격 구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건국신화의 강한 신성성 속에서 존재하던 주몽을 지금의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 인물로 그려내는 일, 그것이 기획자들은 물론 연기자들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이면서 동시에 가장 시청자들에게 설득력을 얻는 것이었다. 드라마 속에 무수한 인물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주몽>은 곧 고구려 건국의 주인공 ‘주몽’으로, 그 역할을 연기한 송일국이라는 배우로 그 이미지가 즉각 대체되고 고정되는 것도 그러한 기획 의도가 일정정도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주인공 ‘주몽’에 초점을 맞추어 신화 속의 주몽과 드라마 속의 주몽을 비교분석하면서 주몽을 영웅으로 성장시키는 서사의 특징과 그것을 시청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이미지 구현의 두 방향으로 영웅 신화의 주몽을 현실화시킨 드라마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주몽>은 대규모 전투장면 등 스펙터클을 강조하는 다른 역사 드라마와는 달리 현대드라마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혼용한 서사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드라마의 서사 속에 혼용된 현대 드라마의 다양한 면모들을 분석하면서 시청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낸 근거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 대상은 방송된 81부 전체를 대상으로, 대사의 인용이나 서사 분석의 텍스트는 TV에서 방송된 영상물을 대상으로 한다.<sup>9)</sup>

9) TV드라마 연구에서 1차 텍스트로 무엇을 선정할 것인가는 연구의 어려움 중 하나이다(윤석진, TV드라마의 현실성 확보방식 고찰, 『한국극예술연구』 21집, 한국극예술학회, 2005.4, 324면, 각주 14번). 이것은 TV드라마 자체에서 작가가 행사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극본과 작가를 무시할 수 없는 현실에서 비롯된 어려움이다. 그러나 TV드라마는 작가가 집필한 방송극본을 토대로 연출자가 시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영상으로 꾸며내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 대상은 TV에서 방송되어 시청자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영상물이 되어야 한다. TV 드라마를 대하는 시청자들은 TV라는 영상매체를 통해 방송되는 영상물을 접하는 것이 극본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주몽>의 경우는 작가도 공동 집필이고 연출도 공동 연출이기 때문에 영상물과 극본을 따로 구분하는 것이 작품 이해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앞으로 본문에서 인용되는 부분들은 <주몽>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mbc.com/broad/tv/drama/jumong>)의 영상물을 출처로 한다.

## 2. 영웅 신화 속 ‘주몽’의 현실적 형상화

### 1) 건국 신화의 신성성을 배제한 성장 영웅 서사

<주몽>은 기획의도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신화보다 거대한 영웅을 만난다

알렉산더, 징기스칸, 그리고 우리에게 주몽! 한 남자로 태어나 시대를 압도하며 역사를 바꾼 영웅들. 이제까지 수많은 왕과 무사의 역사들에만 익숙해왔던 한국 드라마가 진정한 영웅의 탄생에 도전한다. 신화로만 기억되는 그 이름, 혼자 몸으로 수천만 대군을 상대해 빼앗긴 고조선의 하늘을 되찾고 고구려의 하늘을 연 고구려의 영웅 ‘주몽’을 만나라!

다소 직설적이며 감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보듯이 <주몽>은 고구려를 건국한 영웅 ‘주몽’에 대한 일대기이다. 영웅은 역사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로, 여기에 구현되는 영웅은 대중들의 욕망에 대한 대리자이자 그것의 집약체로서 기능하는데, 특정 시기 드라마가 형상화해내는 영웅의 모습과 그것을 환영하는 시청자 간의 소통은 당대 대중의식을 가늠할 수 있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 국난 극복의 대명사로 알려진 이순신 장군을 필두로 전쟁에 앞장서 큰 공적을 세운 많은 장군들(연개소문도 여기에 해당한다)을 통해 위기상황을 지혜롭게 견뎌내는 영웅상을 그리기도 하고, 미천한 신분에서 최고의 지위까지 오르는 허준이나 대장금처럼 자신의 타고난 자질과 노력을 기반으로 성공한 영웅을 보여주기도 하며, 때에 따라서는 왕이나 임금도 영웅으로 형상화(<서동요>의 백제 무왕이 대표적이다)하는 등 매우 다양한 영웅들이 TV드라마에 등장한다.

주몽이 다른 영웅들과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신화시대의 건국

영웅이라는 점이다. 국난을 극복하거나 개인적 성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역사 한 가운데에 우뚝 선 주체적 영웅인데, 실제 역사의 기록에 서는 신화라는 허구 속에 미화되고 신성시되어 있어 그 구체적 활약상을 가늠하기 어려운 영웅이기도 하다. TV드라마 <주몽>은 바로 이러한 점, 신화 속에 신으로 추앙되는 주몽을 시청자들이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인물로 형상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대중에게 익숙한 주몽신화라는 신성한 영웅 서사에서 현실성 부여를 위해 제작진에 의해 변형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주몽의 영웅 서사를 현실화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① 알에서 태어나지 않다

신화 속의 주몽은 다음과 같이 태어났다.

금와가 이상히 여기며 방 안에 깊이 가두었는데, 햇볕이 비치기에 (유화가) 몸을 비켜 피했지만 해그림자가 따라 비쳤다. 그러고는 잉태해 알 하나를 낳았는데 크기가 닳되만 했다. 왕이 그 알을 개나 돼지에게 던져 주었지만 모두 먹지 않았고, 또 한길에 내버려도 소나 말이 밟지 않았으며, 들판에 내버려도 새와 짐승이 덮어주었다. 왕이 그 알을 깨뜨리려고 했지만 끝내 깨뜨리지 못하고 그 어미에게 돌려주었다. 어미가 잘 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한 아이가 알껍질을 깨치고 나왔다. 뼈대와 몸가짐이 영특하고도 기이했다.<sup>10)</sup>

기이하며 신비로운 탄생은 신화의 출발점이자 영웅의 특별함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모티프이다. 알에서 태어난 신화 속 주몽은 이미 태어나면서

10) 일연, 이가원·허경진 옮김, 『삼국유사』, 한길사, 2006, 81~82면. 본문에서 인용되는 주몽신화의 내용은 모두 이 책을 출처로 하며, 따라서 앞으로는 원문 인용은 생략하고, 인용된 내용의 쪽수만을 표기하기로 한다.

신성성을 부여받고, 동시에 범인(凡人)과는 다른 태생적인 능력을 지니게 되며, 이를 통해 영웅으로서 앞으로 진행될 서사에 기초 작업을 완료한 셈이다. 그런데 가상의 역사를 다루지만 그것을 그럴 듯한 현실로 꾸며내어야 할 TV드라마는 알에서 태어난 신이한 탄생을 그대로 재현할 수가 없다. 시청자들이 드라마에서 바라는 것은 신비로운 출생의 주몽을 어떻게 현실 속의 인간으로 그려내는가에 놓여 있고, 제작진은 이에 따라 주몽의 탄생을 일반적인 인간의 탄생과 같은 맥락으로 설정하였다.

고조선의 유민들에게 영웅으로 불려진 해모수 장군과, 하백족 족장의 딸이자 곧고 강인한 성품을 지닌 유화, 이 둘의 짧지만 불같은 사랑을 통해 주몽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다만 일반적 출생과 다른 점은 주몽이 유화의 복중에 있을 때 아버지 해모수가 한나라와 해부루의 관계로 잡혀 주몽의 잉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 즉 아버지를 모르는 상태로 태어났다는 것이다. 20여 년이 지나 해모수가 감금되어 있는 실체를 드러내고 주몽이 스승으로 모시면서 부자의 인연이 다시 연결되는 지점에 이르러서야 주몽은 자신의 출생에 대한 정당성과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특히 해모수와 주몽의 부자관계를 당사자들은 모른 채 시청자들만이 알고 있게 한 ‘극적 아이러니’<sup>11)</sup>의 사용은 작품의 현실성 부여는 물론, 시청자만이 아는 사실이 언제쯤 밝혀질 것인가라는 호기심으로 앞으로의 사건 전개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는 곧 시청자들에게 인간 주몽이 언제쯤 자신의 정통성을 자각하여 영웅이 될 것인가의 질문으로 대치되면서 드라마 <주몽>에 대한 충성도를 이어나가게 한다.

그 이전의 주몽, 즉 해모수를 만나기 전 드라마 초반부에 형상화된 주

11) ‘극적 아이러니’는 TV드라마의 현실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장치이다. 윤석진은 KBS 미니시리즈 <미안하다 사랑한다>를 분석하면서 “자주 사용되는 극적 아이러니는 등장인물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유발하면서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현실적인 이야기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윤석진, 「TV드라마의 현실성 확보 방식 고찰」, 『한국극예술연구』 21집, 한국극예술학회, 2005.4, 337면.

몽은 금와왕의 서자이지만 왕자로서 별다른 아쉬움 없이 여자나 희롱하는 천둥별거숭이의 철부지에 유약한 성격으로 풍족한 시절을 보낼 뿐 현실이나 역사, 혈통에 대한 정체성의 확인 등 영웅으로서의 면모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출생에서부터 신성시되는 신화 속 주몽의 기이한 탄생이 현실적 인간의 탄생으로 전환되면서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이나 영웅적 자질을 후천적으로 획득하고 발견하여 인간에서 영웅으로 성장하는 현대적 영웅 서사<sup>12)</sup>의 자연스러운 전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그런 점에서 시청자들에게 신화 속 주몽을 현실적 주몽으로 받아들이는 현실성을 부여한다. 영웅으로 대접받던 아버지와 그에 어울리는 어머니 사이에서 점차 아버지의 존재와 자신의 운명을 자각하는 주몽, 이것이 알이 아닌 유화의 몸에서 주몽이 직접 탄생한 의미이며, 실제로 이 시기의 유약한 주몽은 영웅이라기보다는 인간으로서 시청자들에게 다가가 친근함을 주는 것이다.

## ② 영웅의 능력을 스승에게서 훈육 받다

알에서 태어난 신화 속의 주몽은 그 능력 또한 이미 태생적으로 부여되어 있어 영웅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나이 겨우 일곱 살이 되자 기골이 준수하여 여느 아이와 달랐으며, 스스로 활과 살을 만들었다. 백 번 쏘면 백 번 맞췄다. 나라 풍속에 활 잘 쏘

12) 현대적 영웅 서사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허준>이나 <대장금>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작품 속의 주인공들은 다른 영웅들처럼 특별한 탄생을 하지도 않고 혈통이 신성하지도 않은 일반적인 인물이다. 그럼에도 타고난 기질과 자신의 노력, 여러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영웅이 된다. 특히 <대장금>의 장금이는 여성의 영웅 서사라는 점에서 현대적 영웅 서사의 중요한 단초들을 제공하고 있다. <대장금>의 영웅 서사와 관련된 내용은 김태연, 「드라마 <대장금>에 나타난 영웅 서사의 현대적 변용」, 『한국어문학의 외국이론 수용양상』, 충남대 어문연구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2006.11.10. 참고할 것.

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했으므로, 이를 이름으로 삼았다. 금와가 아들 일곱을 두었는데, 늘 주몽과 함께 놀았지만 그의 기능을 따르지 못했다. 맏아들 대소가 왕에게 아뢰기를, ‘주몽은 사람의 소생이 아니니 만약 일찌감치 없애지 않는다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라고 했지만, 왕은 듣지 않고 주몽으로 하여금 말을 기르게 했다. 주몽이 준마를 알아보아 적게 먹여 여윌게 하고, 둔마는 잘 먹여 살찌게 했다. 왕은 스스로 살찐 말을 타고 여윌 말은 주몽에게 주었다.(82면)<sup>13)</sup>

신화 속에서 대소왕자가 주몽을 배척한 것은 그의 타고난 능력, 특히 활쏘기 능력 때문이다. 고구려는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적 국가였기 때문에 무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영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특히 주몽의 활쏘기 능력은 고구려의 시조라는 점과 맞물려 고구려 최고의 스타<sup>14)</sup>로 추앙받게 된 것이다. 그의 이름 ‘주몽’(朱蒙)도 활을 잘 쏘는 사람에게 붙여진 호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활 쏘는 능력은 그 시기 영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척도였으며, 주몽은 이미 그 면모를 어린 시절부터 보여준 영웅이었다.

이렇듯 태어나면서부터 영웅으로 빛을 발하는 신화 속 주몽과는 달리 TV드라마 속의 주몽은 해모수라는 스승을 만나고 나서야 활 쏘는 능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드라마에 나타난 대소왕자와의 대결구도는 주몽의 타고난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후궁이면서도 금와왕의 총애를 받는 유화와 주몽에 대한 원후의 미움이 대소에게로 이어지고 무심한 아버지 금와왕의 태도에 불만을 품으면서 성립된 것으로, 개인적인 능력의 면에서는

13) 주몽의 능력, 특히 활을 쏘는 능력에 대해서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도 있는데, 고려시대 문인 이규보는 “어미가 받아서 기르니/한 달이 되자 말하기 시작했네/스스로 말하되 파리가 눈을 빠니/누워도 편히 잘 수 없어요/어미가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니/그 활이 빛나가는 법 없도다”(이규보, 『동국이상국전집』 3권, 『퇴새겨보는 우리 건국신화』(김문태 저), 보고사, 2006, 83~84면)라고 적고 있다.

14) 김용만, 『고구려의 그 많은 수레는 다 어디로 갔을까』, 바다출판사, 1999. 78면.

주몽이 대소왕자를 뛰어넘을 만큼 탁월한 면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어리버리한 주몽의 스승이 해모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데, 현대적 영웅 서사의 특징 중 하나는 평범해보이던 인물의 내적 자질을 이끌어내어 영웅으로 성장시키는 훌륭한 스승의 존재이다.<sup>15)</sup> 자신은 미처 깨닫지 못한 스스로의 능력을 다소 가혹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발현시키는 존재인 스승은 그 훈육 과정이 방송되는 동안 주인공인 영웅보다 더 많이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기도 한다.<sup>16)</sup> 이렇게 영웅을 만들어내는 존재인 스승이 아버지라는 <주몽>의 설정은 탄생에서 부여받지 못한 영웅성을 혈통과 능력의 전수와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개연성을 얻게 된다.

신화 속 주몽은 일곱 살이 되어서야 활 쏘는 재주를 인정받아 ‘주몽’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지만, 드라마 속의 주몽은 활을 잘 쏘는 해모수의 능력을 그대로 이어받기를 바라는 유희부인이 붙여준 것으로, 유희부인의 바람은 해모수가 주몽의 무술 스승이 되면서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스승인 해모수는 이미 눈이 멀었고 20여 년이나 동굴에 감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초월한 존재로 그려지는데, 여기에 대소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젊은 주몽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명분으로 해모수의 무술을 그대로 전수받는다. 또한 고조선 유민들을 이끌고 잃어버린 나라

15) 김태연은 <대장금>의 분석에서 대장금의 여러 스승들을 조력자에 포함시켜 살펴보면 “스승으로 만나는 조력자들은 영웅으로서의 장금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김태연, 앞의 글, 339면)고 서술하고 있는데, <주몽>에서는 유일하게 등장하는 스승이 아버지인 해모수이며, 이후 주몽의 행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조력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무술의 스승이자 인생의 스승이 된다.

16) <허준>이 방송될 때 지독하게 엄하지만 마지막엔 제자를 위해 자신의 몸을 해부하도록 허락한 허준의 스승 유의태가 큰 인기를 얻었으며, <대장금>의 경우도 수랏간 상궁으로 장금에게 까다롭지만 원칙을 고수하도록 수련을 시킨 환상궁이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주몽> 또한 해모수가 다시 등장하여 주몽의 스승으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시청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주몽>의 주인공은 해모수’라는 이야기도 나오게 된다.

고조선을 되찾으려 했던 해모수의 꿈도 유언의 형식으로 주몽에게 이어져 주몽이 실현해야 할 “대업”으로 자리 잡게 된다. 결국 아버지를 스승으로 둔 주몽은 그의 모든 능력은 물론이고 이루지 못한 꿈까지 고스란히 이어받아 영웅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해모수의 죽음 이후 자신을 탓하며 방탕한 생활을 거듭하던 주몽이 달라진 눈빛과 출중한 무술 실력을 보여주는 것도 부자관계의 확인과 유언을 따르기로 한 이후부터라는 점에서 해모수는 아버지라는 혈연관계와 무술 스승이라는 표면적 관계를 넘어 주몽의 꿈과 명분 그 자체가 되어버린 존재로 의미를 갖는다.

### ③ 조력자를 통해 고난을 극복하다

영웅 서사에서 시련은 영웅성을 돋보이게 만드는 필연적인 장치이다. 혹독한 시련과 고난이 있을수록 그것을 극복해내는 영웅의 능력은 더욱 강조되어 나타나는데, 신화 속에 그려진 주몽의 가장 큰 고난은 부여를 탈출하는 것이었다.

이에 주몽이 오이 등 세 사람을 벗삼아 길을 가다가 엄수에 이르자 물에게 이렇게 고했다. ‘나는 천제의 아들이고 하백의 손자이다. 오늘 도망하는 중인데 쫓아오는 자들이 거의 따라잡게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고기와 자라들이 다리를 이루어 건너가게 한 뒤에 다리가 풀어졌다. 그래서 쫓아오던 기병들이 건너지 못했다.(82면)

이 대목에서 목숨이 걸린 위급한 상황을 극복한 것은 주몽이 지닌 혈통의 신성함으로, 하늘의 아들이라는 정통성이 인정되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되는 장면은 주몽신화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드라마 속의 주몽은 영웅으로 성장해가는 만큼 많은 고난을 겪게 되는데,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여 영웅의 자질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발휘하게 만드는 서사구조를 사용한다.

이는 이미 ‘국민 드라마’라 칭하는 <허준>에서 보아온 익숙한 구조<sup>17)</sup>로, <주몽>에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이 서사구조가 현대적 영웅 서사의 전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화 속 주몽이 혈통을 통해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면 드라마의 주몽은 조력자의 도움으로 문제를 극복한다. 가장 처음 닥친 위기는 시조산에서 다물활을 보고 오라는 금와왕의 명령인데, 여기에서 주몽은 길을 잃어 늪에 빠져 죽을 지경에 이른다. 이때 채찍을 내밀어 목숨을 구해 주고 시조산 근처까지 동행해준 인물이 평생의 조력자인 소서노이다. 본격적인 고난은 태자경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주몽은 강철검과 소금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태자경합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 강철검의 생산은 부여 철기망의 대장인 모팔모와의 친분을 통해서, 소금의 확보는 소서노와의 고산국 원행을 통해 성취한다. 다만, 고산국 신녀와의 담판 등 구체적인 문제 해결은 주몽의 능력이 아닌 조력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주몽의 영웅성이 부각되지 못한 편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씩 보완하고자 한 것이 임둔과 진변의 전투이다. 태자경합에서 승기를 잡아 호위총관에 오른 주몽이 고조선 유민의 구출을 명분으로 계획한 이 전쟁에서 한나라 군대를 향해 연을 띄워 소탄을 날려 공격하는 주몽의 기지와 능력은 이전까지 보여주던 무력한 이미지를 떼어내는 역할을 한다. 이 전쟁에 이어 주몽에게 닥친 위기는 임둔 태수를 추격하다 실종

17) 하나의 단계를 극복한 후 다른 단계로 접어들면서 주인공의 능력이 배가되는 구조는 TV드라마는 물론 현재 대중 서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조로,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롤플레이팅 게임에서도 중요한 서사로 사용되는데, 이때의 용어는 연결된 에피소드를 통한 ‘계단식 구성’(한혜원, 『디지털 게임 스토리텔링』, 살림출판사, 2005, 34면)이라고 하며, 애니메이션에서는 ‘단계 구조’라는 명칭(박기수, 『애니메이션 서사 구조와 전략』, 논형, 2004, 62면)을 사용하기도 한다. <주몽>의 시청자층이 다른 역사드라마와는 달리 젊은이들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이 구조는 그들이 일상적으로 향유하는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등에서 이미 익숙한 구조이며, 시청자들은 앞으로 전개될 무수한 단계 혹은 계단들을 예상하고 그것을 극복할 영웅의 면모를 주목할 수 있게 된다.

된 일이다. 한나라 철기군의 화살을 맞고 떠나려 온 주몽은 한백족 족장에게 구출되어 그 딸인 예소야의 극진한 간호를 통해 살아나게 된다.<sup>18)</sup> 가까스로 살아났지만 곧 한나라에게 넘겨질 위기에서 주몽의 죽음을 끝내 인정하지 않던 모팰모 등의 조력자를 통해 구출되어 다시 부여로 돌아온다.

죽음의 고비까지 맞았던 주몽은 이후 커다란 고난에 부딪치는데, 고조선 유민들을 데리고 부여를 탈출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앞의 에피소드들이 조력자들을 통해 해결됨으로써 영웅으로의 주몽을 숙련시키거나 성장시키는 데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주몽의 영웅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면,<sup>19)</sup> 부여 탈출의 위기상황은 주몽이 주체적으로 중심에 섭으로써 건국 영웅으로서의 면모를 효과적으로 그려낸다.

부상당한 금와의 권력을 빼앗은 대소왕자에게 표면적으로 충성을 바치는 모습은 신화에서 말을 키울 때 둔마를 살지게 키우는 주몽의 모습과 닮아 있다. 이 과정에서 뛰어난 능력의 준마를 비밀스럽게 자신의 것으로 만든 주몽의 기지는 드라마 속에서 고조선 유민들을 모으고 그들과 함께 부여를 탈출할 명분을 얻는 것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대소왕자의 신임을 얻은 주몽은 한나라로 고조선 유민들을 이끌고 갈 책임자로

18) 이 과정은 주몽의 부모인 해모수와 유화가 만나는 내용과 일치한다. 한나라 철기군의 공격으로 온 몸에 화살을 맞고 강을 따라 떠나려 오던 해모수를 유화가 발견하면서 둘의 만남이 시작되고 건강을 돌봐주면서 서로에 대한 애정이 싹트게 되어 주몽을 갖기에 이른다. 주몽도 예소야가 직접 구해주지 않았지만 지금 정성으로 간호하여 다시 살아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예소야는 주몽에 대한 호감을 느끼고 주몽은 보은의 책임감을 갖게 되어 부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주몽의 실종은 영웅의 능력을 키우거나 숙련을 위한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연인인 소서노와 헤어지고 첫째부인 예소야를 만나기 위한 장치로 이해된다.

19) 주몽이 여러 위기 상황에서 영웅의 면모를 보여주는 데 미흡했기 때문에 이때까지의 주몽에 대해 실망하는 시청자들의 의견이 쏟아져 나왔고, 느슨한 사건 전개와 반복되는 에피소드(부영의 납치와 구출, 예소야의 납치와 구출이 대표적이다)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주몽> 인터넷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참고.

자처하게 되고, 건강을 핑계로 대소왕자의 군사들을 금외왕과 유화부인이 빼돌린 틈을 타 부여를 벗어나게 된다. 위기 상황에 몰렸을 때 자신을 낮추고 훗날을 도모하는 영웅의 면모가 발휘된 부분으로, 대소왕자의 추격을 뒤로 한 채 미리 준비해놓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 본계산 산채로 들어가 새로운 나라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된다. 물고기와 자라가 놓아준 다리를 통한 탈출의 쾌감을 드라마에서 어떻게 그려낼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시청자들에게 다소 실망스러운 장면이긴 하지만 주몽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추구하는 대업을 이루는 데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건이며, 시청자들에게는 물고기와 자라보다 극적 현실성을 더욱 강하게 부여하고 있다.

드라마 초반부에는 조력자의 적극적 도움으로 고난을 극복하던 주몽이 영웅의 면모를 갖추고 그 자질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는 어떠한 고난이나 사건보다 해모수의 가르침이었다. 따라서 영웅적 면모를 확인할 수 없었던 초기의 모습과는 달리 스스로의 운명과 과업을 자각한 주몽은 보다 뚜렷한 영웅성을 제시하며 건국 영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졸본통합과 고구려 건국이라는 성과를 통해 명확하게 실현되는데, 이 과정에서 주몽은 성장한 영웅으로, 한 나라를 다스릴 제왕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낸다.

#### ④ ‘다물(多勿)’의 명분을 내세워 고구려를 건국하다

고구려의 건국 신화임에도 불구하고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한 것에 대한 서술은 그의 성장 과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략한 편이다.

졸본주에 이르러 도움을 열었는데, 미처 궁전을 지을 겨를이 없어 다만 비류수 위에 집을 얹고 살면서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 했다. 이로 인하여 고(高)를 씨(氏)로 삼으니, 그때 나이가 열두 살이었다. 한나라 효원제 건소 2년 갑신(기원전 37)에 왕위에 올라 왕이라 일컬었다.(82~83면)

이 내용을 따져보면 신화 속 주몽은 고구려 건국에 대한 명분이 없다. 앞서 서술된 대로 ‘주몽은 신성한 혈통을 타고났고 뛰어난 영웅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 밑에서 신하노릇은 할 수 없으니 새로운 나라를 세워 왕을 하겠다’는 정도의 이유만 유추될 뿐이다.<sup>20)</sup> 또한 건국의 특별한 정황이 생략된 채 “비류수 위에 집을 얹고 살”았다는 표현은 마치 광활한 땅의 한 쪽에 깃발을 꽂고 자신의 나라임을 공표하면 나라가 건국될 듯한 인상을 심어주어 한 나라를 세우는 복잡하고 어려운 건국의 역사(役事)가 매우 간단한 것으로 생각될 정도이다. 이렇듯 신화 속 건국의 내용이 소략한 것은 주몽이 고구려를 세운 것은 기정사실로, 문제는 고구려를 세운 한 개인이 그럴 만한 인물이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즉, 건국 시조의 자질과 당위성, 신성함 등 한 나라를 세울 수밖에 없는 영웅의 면모를 설명하는 것이 신화의 중심 내용일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주몽> 역시 주몽이 영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고, 졸본을 통합한 이후로는 건국 영웅으로서 중후하고 과묵한 성격으로 고정되고 있어서 인간적 매력과 극적 재미는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TV드라마는 이렇듯 신화에서 허술하게 서술된 고구려 건국의 명분을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고조선 유민을 이끌고 잃어버린 강력한 국가인 고조선을 되찾는다는 ‘다물’의 대업이 그것이다. 이 대업은 주몽 이전의 영웅인 해모수의 꿈이었으며 그것이 그의 능력까지 고스란히 이어받은 적통자 주몽에게 그대로 이어져 성취된다<sup>21)</sup>는 점에서 주몽의 고구려

20) 주몽신화에 역사적 사실을 덧붙여 고구려 건국의 정황들을 소설보다 더욱 풍부하고 실감나게 서술하고 있는 김기홍의 『고구려 건국사』를 보면 유희부인이 주몽에게 건국의 동기를 부여하는데, “너는 사실 하늘의 아들이다. 하늘의 아들이 어찌 다른 사람 밑에서 신하노릇을 할 수 있겠느냐. 너는 왕이 될 운명을 타고서 이 땅에 내려왔으니 새롭게 너의 왕국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하늘의 뜻이다.”(김기홍, 『고구려 건국사』, 창비, 2002, 24면)라고 하여 주몽의 고구려 건국은 운명이고 이미 정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건국은 명분뿐만 아니라 드라마적 현실성까지 확보하게 된다.

계루를 새로운 동지로 삼은 주몽과 다물군은 본격적인 졸본 통합에 나서게 되는데, 다물군과의 결합을 주도한 소서노는 남편 우태의 죽음과 관련되어 비류의 송양을 원수로 여겨 주몽과 합세한 후 비류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이를 발판으로 졸본 전체의 통합을 이루어낸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때 주몽은 “졸본은 다섯 부족이 나뉘어져 있지만 연맹의 백성들은 한 피를 나눈 형제와 같다 들었습니다. 그런 졸본 백성들이 수장들의 분열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그 참혹한 핏자국 위에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61부<sup>21</sup>)라고 말하여 연타발과 소서노를 설득하였고, 각 족장의 성격을 이용하여 전쟁 없이 무혈로 마침내 졸본 통합에 성공한다. 찬란했던 나라 고조선을 되찾아 주변국에 횡포를 일삼는 한나라를 물리치자는 주몽의 명분은 졸본의 각 족장들에게도 통하였고, 다물군 대장으로 성장한 주몽은 개인적 감정을 앞세우기 보다는 원수까지도 끌어안는 방법으로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는 영웅성을 발휘한다. 특히 송양의 굴복을 받아내는 장면에서는 송양이 주몽의 됃됨이를 시험해보고자 한 잔에는 술을, 한 잔에는 독이 들었다며 하나를 선택해 마실 것을 종용한다. 이때 주몽은 두 잔의 술을 다 마시면서

- 
- 21) 작품 속에 나타나는 ‘적통계승’은 해모수 → 주몽, 그리고 주몽 → 유리로 대를 이어 이루어지는데, 오랫동안 훈육받고 그 자질을 인정받은 인물일지라도 영웅의 적통자가 아니면 대업을 잇지 못하는 이 적통계승은 역사적 사실을 신화로 만든 중요한 목적으로 보여 진다. 즉, 신성함을 전면화한 신화 속 적통계승을 통해 그것을 전승하는 백성들에게 적통계승의 당위성을 무의식적으로 강조하여 이데올로기화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어려서부터 태자로 성장한 비류가 주몽의 왕위를 잇지 못하고 갑자기 출현한 유리가 고구려 2대 왕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것이다.
- 22) 적대적인 관계에 놓인 부족이나 나라에 대해서도 그 백성들에게 연민을 느끼며 모두 포용하고자 하는 주몽의 제왕적 태도는 끊임없이 자신을 죽이려하는 부여이지만 역병과 가뭄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위해 약재와 곡식을 나눠주고자 소서노를 사신으로 부여궁에 보내는 부분에서도 나타난다.

“만약 내 판단이 헛된 것이라면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62부)라며 배짱과 기지를 발휘하여 자신을 시험해보고자 하는 송양의 의도를 밝혀낸다. 이러한 주몽의 배포는 졸본 중 가장 적대적이었던 비류의 합류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제 주몽은 거대한 나라 고조선의 부활을 실체화시키며 그곳의 왕이 될 수 있는 영웅으로 성장한 것이다. 따라서 이후에 이어지는 현토군과의 전쟁에서도 유민들의 협조 속에 현토군 내부를 공격할 선봉대와 본대를 따로 배치하여 현토군을 안팎으로 공략하는 전략을 세워 양정을 죽이고 승리한 것, 요동군과의 전투에서도 거짓 정보를 흘려 방심한 틈을 이용해 요동성을 함락하고 태수 황자경을 죽이며 대승을 거둔 것도 이미 졸본통합에서 나타난 배포와 지략에 의한 것으로 영웅의 면모가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그러나 현토군 축출 이후 국호를 ‘고구려’로 하여 태황이 된 주몽은 그 자체로 영웅이기 때문에 본계산에서 내려오면서부터 ‘한나라를 몰아내고 옛 조선의 영광을 되살리는 다물의 대업’ 속에서만 존재하는 평면적 인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나타났던 주몽의 다양한 성격 구축은 생략된 채 영웅의 활약상이 중심이 되어, 인간 주몽에 대한 연민과 시청자들의 동일시는 매우 약화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신화 속의 주몽은 영웅으로 탄생하여 탁월한 능력을 지녔으며 그것을 기반으로 고구려를 건국한다. 이에 비해 TV드라마의 주몽은 평범한 부여국 세 번째 왕자로 성장하지만 스승이자 아버지 해모수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혈통과 대업의 운명을 자각하게 되고 다양한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면서 영웅으로 성장하여 결국 우리 역사상 가장 광활한 영토를 가진 고구려를 건국하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처음부터 영웅성이 부여된 영웅 서사는 시청자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자신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로 심한 거리감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처음에는 일반 대중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모습을 보이다가 훌륭한 스승이나 조력자를 통해 차츰 성장하는 영

웅의 모습은 시청자들의 영웅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면서 그 인물에 대해 몰입하여 드라마 속의 상황을 현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주몽의 성공에 시청자들이 환호하는 것은 아무 것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채 유약하기만 한 주몽을 기억하기 때문이며, 그 인물의 성장을 그대로 지켜보는 과정 속에서 주몽에 대한 감정이입과 그의 행동에 대해 개연성을 인정하면서 현실성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준> 이후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영웅의 성장 서사는 시청자들의 동일시를 이끌어내며, 현재의 대중적 감수성과 맞아 떨어지는 부분인 것이다.

한나라가 주변 국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기, 아직은 신성한 것이 받아들여지던 신화시대, 그 속에서 미비한 존재에서 영웅으로 성장한 <주몽>의 성장 서사는 대중들을 강하게 흡입하는 대중성을 획득하며, 그 성장의 결말이 개인적 성공이 아닌 거대 국가의 건국이라는 결과는 혼란스럽고 전망이 부재하는 현실을 타파하여 새로운 이상을 건설하고 제시한 영웅을 기대하는 현대 대중들의 욕망을 충실히 반영하여 충족시킨 것이다. 이는 주몽의 일대기를 다루면서도 그의 죽음이 아닌 전투 장면에서의 힘찬 외침으로 작품을 마무리한 것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 2) 주몽의 영웅성과 현실성의 이미지적 실현

TV드라마가 현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비단 서사의 힘만이 아니다. TV라는 영상매체를 통해서만 시청자들을 만날 수 있는 TV드라마는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시청각적 영상이미지가 현실성과 대중성 확보의 중요한 장치로 활용된다. 역사드라마의 세트가 ‘장소협찬 민속촌’을 버리고 지방에 거대한 단독 세트를 세워 제작되는 것도 영상 이미지를 통해 드라마에 대한 현실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이다. <주몽>은 이전의 역사드라마가 다루지 못한 고구려와 그 속의 영웅을 재현한다는 측면에서 시청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작품이며, 실제로 주몽의 영웅 서사



<사진 1>



<사진 2>



<사진 3>

보다는 화면에 비춰진 주몽의 이미지에 더 집착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주몽의 영웅으로서의 성장 서사를 강력하게 뒷받침한 비주얼적인 측면, 즉 이미지화된 ‘주몽’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인물의 이미지는 의상과 머리 모양, 분장 등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 만들어진다. <주몽>에 등장하는 의상은 비교적 당대 고구려 복식과 비슷해서<sup>23)</sup> 신분에 따라 다른 재질의 옷감을 사용한 점, 귀족과 왕족일수록 화려한 장식과 무늬의 의상을 입었고 장신구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음은 드라마 속의 인물들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주인공 주몽은 키 185cm의 키에 균형 잡힌 몸매와 강한 눈빛을 지닌

23) 고구려의 의복 형태와 머리 모양, 모자와 장신구 등 구체적인 문화사의 내용은 김용만, 『고구려의 발견』, 바다출판사, 1998, 384~392면 참고. <주몽>의 의상은 이 책에서 서술하고 있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배우 송일국의 외형에서 생성된 이미지를 토대로 의상과 머리 모양 등을 통해 주몽의 영웅성을 보완하고 설명하기 때문에 ‘멋지다’는 감탄이 절로 나올 만큼 이미지 구축에 성공하고 있다.

주몽의 의상은 신분이 변할 때마다 달라지지만 부여를 떠나기 전까지의 의상이 모두 붉은 색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부여궁에 있을 때는 왕자의 신분에 맞게 화려한 무늬의 붉은 색 옷을 입는다.(<사진 1>)<sup>24)</sup> 궁 밖에서는 평민의 복장을 하지만 역시 그 색은 붉은 색이고, 전투에 참여할 때 입은 갑옷도 붉은 색이다. 붉은 색은 일반적으로 열정의 상징으로, 눈에 잘 띄며 보는 이의 감정을 고조시키기 때문에 주몽의 이미지를 역동적으로 각인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대소의 의상을 푸른 색 계통으로 설정한 것도 주몽과 대소의 대결구도를 시각적으로 뚜렷하게 하는 데 일조한다.(<사진 2>) 이렇듯 다양하며 화려한 색상의 의상은 각각의 의미를 지니면서 시청자들에게 주몽 시대를 현실적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주몽의 이미지를 현실화해나간다.

부여를 떠나 본계산의 산채생활로 접어들면서부터 주몽의 화려한 의상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수시로 전투 상황에 임해야하는 처지에 놓여졌기 때문에 전투복을 일상복처럼 착용하였기 때문이다.(<사진 3>) 그러나 현토성이나 부여로 잠입할 때는 전투복이 아닌 일상복을 입음으로써 산채에서의 딱딱한 이미지 대신 부드러움을 표현하였고, 잠입 과정에서 벌어진 싸움장면에서의 주몽의 활약은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주몽의 이미지를 만든다.

특히 오이와 함께 현토성에 잠입했을 때 갑자기 몰아닥친 군사들과의 싸움장면에서 검은 색의 평상복과 몸을 움직일 때마다 훑날리는 주몽의 머리는 무협의 한 장면을 연출하면서 주몽이 무술의 고수임을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다.(<사진 4>)

24) 본문에 게재한 <주몽>의 사진들은 모두 <주몽> 인터넷 홈페이지 ‘네티즌 사진방’의 게시물에서 가져왔다.



<사진 4>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어낸 중요한 요소는 바로 주몽의 머리 모양이다. 초반의 주몽은 머리 중간까지를 묶어 올린 후 의상과 같은 색의 머리띠를 항상 두르고 있다. 호위총관이 되어 진번과 임둔의 전쟁에 나서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뒷머리가 풀어져 있는 것도 일관된다. 그러나 비슷해 보이는 머리 모양에서도 약간의 차이를 통해 주몽의 성격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른바 ‘초딩주몽’<sup>25)</sup>으로 불리는 철부지 시절의 주몽은 묶은 머리가 간혹 얼굴 앞으로 내려와 귀엽고 어리숙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사진 5>의 맨 윗줄 어리버리한 주몽의 이미지는 시청자들에게 친근감을 불러일으켜 동일시되었고, 이는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어져 <주몽>의 초반 인기몰이에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호위총관으로 군사들을 이끌 때는 강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머리를 모두 묶어 올렸고<사진 5>두 번째 줄 오른쪽, 실종되었다 돌아왔을 땐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머리띠 없이 자연스럽게 머리를 흘러내렸다.<사진 5>두 번째 줄 왼쪽) 본계산 산채에 들어가서도 젊은 주몽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맨 얼굴이 드러나는 머리를

25) 시청자들은 화면에 비치는 주몽의 이미지에 따라 다양한 별명을 붙이는데, 드라마 초반부 철부지 시절의 주몽을 초등학교생과 같다고 하여 ‘초딩주몽’이라고 부른다. 또 다른 별명으로는 ‘엘프몽’, ‘방탕귀몽’, ‘무협주몽’ 등이 있다. 이러한 별명은 시청자들이 주몽이라는 인물보다 영상으로 제시되는 이미지에 더욱 집중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고수하게 된다. 이러한 머리 모양을 했을 때 배우는 자신의 표정과 눈빛 연기로 감정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되지만 오히려 시청자들은 그 점으로 인해 배우의 연기력에 찬사를 보내기도 한다.

본계산에 들어와서 다물군이 나뉠대로 체계를 잡은 3년 후에, 수염을 기른 주몽은 머리띠를 벗어버리고 묶은 머리를 흘날리며 나타난다.<사진 5> 세 번째 줄 오른쪽 이전의 모습보다 훨씬 성숙하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풍기는 이 머리 모양은 대장으로서의 기품을 갖추어가는 주몽의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아직 질서가 견고하지 않은 다물군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내고 있다. 배우 송일국의 얼굴과 어울려 내리는 머리 모양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 쓸



<사진 5>

쓸하면서도 깊이 있는 주몽의 이미지를 창출<sup>26)</sup>하고 있기 때문에 주몽은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한가운데서도 절대로 투구를 쓰지 않는 위험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머리 모양을 고수하다가 고구려 건국을 선포하면서 다시 머리띠를 둘러 단정한 제왕의 이미지를 구현하고 있다.

주몽을 영웅의 이미지로 완성시키는 것은 그의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에서이다. 카메라는 역동적인 주몽의 활약상을 잡기 위해 무수히

26) 이영미는 칼럼에서 주몽의 머리 모양에 대해 “인물의 단순성을 적절히 보완해”준다고 하면서 머리 모양이 배우 성격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였다. 이영미, 칼럼- [야한국사회] 주몽은 왜 앞머리를 내렸을까?, 『한겨레신문』, 2006.12.25.



<사진 6>



<사진 7>

노력하는데, 특히 주몽의 특기인 활 쏘는 장면의 연출은 신궁으로서의 주몽을 이미지화하고 있다. 기마문명의 기억을 잃은 지 오래인 지금의 시청자들은 넓은 들판에서 빠른 속도로 말을 달리는 주몽을 보기만 해도 시원한 쾌감을 느낀다.<사진 6> 그것에 호응하는 듯, 주몽은 개인적인 고민이 있을 때마다 강변으로, 초원으로 말을 달리며 그 생각을 정리하는 장면이 많이 연출된다.

또한 멀리서부터 달려오는 말과 그 위에 앉아 활시위를 당기고 있는 주몽을 롱 쇼트로 잡아내는 장면은 주몽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현실화시키고 있다. <사진 7> 많은 전투장면에서 빠지지 않고 주몽의 활 쏘는 장면이 클로즈업으로 연출된 것도 신궁으로서의 주몽을 이미지로서 현실화시키고 있는 것이며, 패전의 기운이 감도는 전투 상황에서 불현듯 나타난 한 번에 두 개씩 화살을 활시위에 겨누고 달려오는 주몽은 그 자체로 전쟁의 돌파구이자 승리의 상징으로 시청자들에게 보여 지는 것이다.

고구려의 건국이 치열한 전투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에 있던 주몽은 전쟁터에서 가장 빛을 발한 영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소략한 전쟁장면은 작품의 시각적인 측면에서 빈약한 스펙터클로 비난을 받았으며 끝내 극복되지 못한 제작 여건상의 문제점<sup>27)</sup>으로 지적

27) 제작진은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탓인지 <주몽> 마지막 회 요동군과의 전투장면에서 무골의 죽음에 흥분한 주몽이 하늘을 날아 요동군 태수 황자경을 죽이

될 수 있지만, 적어도 말을 타며 활을 쏘는 주몽의 연출 장면은 이 드라마가 성취한 영웅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시청자들에게 매우 익숙한 나폴레옹의 초상화를 연상케 하는 <주몽>의 마지막 회 엔딩 장면(<사진 8>)은



<사진 8>

건국 영웅이면서도 앞으로 더 많은 전투를 치러낼 전쟁 영웅으로서의 주몽을 현재진행형의 이미지로 담아내고 있다.

이렇듯 성장하는 영웅 서사 속의 주몽은 의상과 머리 모양, 카메라의 역동적 활용을 통해 그의 영웅적 면모를 다양하게 강조하고 있으며, 건국 영웅으로서의 현실성을 시각적으로 이미지화하여 시청자들에게 강한 현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많은 시청자들이 빈약한 전투 장면에도 불구하고 <주몽>을 지켜보는 것은 달리는 말 위에서 화살을 겨누는 주몽의 이미지 때문인 것이다.

### 3. 장르 혼용을 통한 신화의 TV드라마 서사 구축

최근의 역사드라마가 정사를 중심으로 한 역사적 사실의 재현보다는 작가의 상상력을 풀어낼 수 있는 소재를 선택하여 다양한 장르 혼용을 통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앞서 지적하였는데, <주몽>도 이러한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현대 드라마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는 장면을 연출하였지만, 하늘을 나는 것은 이전에 보여 지지 않던 주몽의 활약상이기 때문에 그 의도에 비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몇 가지 모티프들이 드라마의 공식처럼 인식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주인공들의 출생의 비밀, 삼각관계 또는 사각관계, 재벌2세, 백혈병 등 치명적 질환, 신데렐라형 주인공 등이다.<sup>28)</sup> 고구려 건국이라는 역사를 소재로 영웅의 성장 서사를 중심으로 삼은 <주몽>에서도 식상하다고 비판받는 현대 드라마의 공식들이 고스란히 나타나며 때에 따라서는 대를 이어 반복되는 특징을 보인다.<sup>29)</sup> 그 대표적인 것이 출생의 비밀과, 이 작품의 서사에 큰 비중을 차지한 삼각관계의 멜로 라인이다. 우선 주몽으로부터 촉발된 출생의 비밀이 유리에게로 대물림되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출생의 비밀과 성장 서사의 대물림

### ① 출생의 비밀

다물군을 이끄는 해모수와, 가족이 몰살된 채 한나라로 끌려가다 다물군 산채에 머물게 된 유화는 하룻밤 불꽃같은 사랑으로 아기를 잉태한다. 그러나 해모수는 한나라로 잡혀가 결국 실종되었기 때문에 유화는 그 사실을 해모수에게 알릴 수가 없었다. 그때 해모수의 동지이자 유화를 연

28) 배국남 기자, 「외국인도 아는 한국 드라마의 진부함」, 『마이데일리』, 2005.10.16. 이 기사의 전문은 <http://www.mydaily.co.kr/news/read.html?newsid=200510161227040100>에서 참고.

29) 특정한 서사가 반복되는 것은 이 작품의 특징이기도 한데, 유화와 해모수의 만남이 주몽과 예소아의 만남에서 반복되고, 해모수와 유화의 운명적인 헤어짐도 주몽과 소서노 사이에서도 일어나며, 금와의 유화에 대한 일방적 사랑이 대소의 소서노에 대한 사랑으로 반복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반복은 서사 진행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TV드라마의 장르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연속되는 특징에서 비롯한 느슨한 전개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다만, 이 작품의 거듭되는 실종과 납치, 구출은 그 반복의 주기가 지나치게 짧기 때문에 사건 전환의 의미를 획득하기 보다는 주몽이 처한 특정한 국면들을 타개하는 간편하고 손쉬운 수단으로 처리되어 문제점을 남긴다.

모하던 당시 부여의 태자 금와는 유화를 자신의 궁으로 데리고 가 후궁으로 맞이한다. 금와는 이렇게 함으로써 죽은 친구의 가족을 거두어 의리를 지킨다는 명분도 세우고 연모하는 여인을 옆에 둘 수 있다는 또 다른 목적도 충족시킬 수 있었다. 유화 역시 의지할 곳 없는 상황과 해모수의 아이를 어떻게든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금와의 호의를 쉽게 받아들인다. 8개월 뒤 낳은 아이를 금와의 아들이라고 대외에 알림으로써 안정적인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주몽의 출생의 비밀에 대한 모티프는 이런 배경 하에서 이루어졌다.

주몽이 가진 출생의 비밀에 가장 집착하는 인물은 원후이다. 금와의 정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인 대소와 영포까지도 금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모두 유화부인 때문이라고 생각한 그녀에게 주몽이 금와왕의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은 유화를 궁궐에서 내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명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끊임없이 주몽이 해모수의 핏줄임을 의심하면서 갖은 수단으로 유화를 경계하고 괴롭히게 된다. 길거리 시인을 불러들여 해모수와 유화의 사랑을 테마로 하는 노래를 유화 면전에서 부르게 한 것도 차마 금와왕에게 직접 물을 수 없어 은연 중 유화를 떠보려는 원후의 계략이었다. 이에 대해 유화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아 그 비밀은 지속된다.

출생의 비밀은 주몽에게 매우 중요한 모티프로 작용하는데, 극적 아이러니를 창출하여 시청자들의 몰입과 현실성을 확보한 부분, 즉 주몽과 해모수가 사제시간이 되어 무술을 수련하는 동안에도 주몽은 조금의 의심도 없이 스스로 금와왕의 아들이었다. 그러나 해모수의 죽음을 통해 밝혀진 자신의 출생에 대한 진실은 방황하던 유약한 주몽을 강인한 의지의 인물로 변화시켰으며, 나아가 그의 운명과 대업의 성취라는 명분을 획득하여 영웅으로 자각하는 계기가 된다. 현대 드라마에서는 자신의 생부, 생모의 존재가 따로 있음을 확인하는 당사자들이 그 부모를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두 가지 행동양태를 보이는데, 주몽은 생부의 운명과 꿈

을 자신의 것을 이어받으면서 출생의 비밀을 성장의 적극적 계기로 활용한 것이다. 생부를 부정하지 않은 절대적 이유는 해모수를 인생의 스승으로 먼저 만났기 때문이다.

주몽의 아들인 유리 또한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유리가 태어났을 때 이미 주몽은 유민을 이끌고 부여를 떠난 뒤였고 유희부인과 예소야는 볼모가 되어 부여궁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리의 유년기는 궁궐에서 왕족의 일원으로 성장한다. 그러나 부여궁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든든한 울타리였던 유희부인이 죽고, 주몽을 찾아간 고구려궁에서는 주몽과 소서노의 결혼식이 연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소야는 아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혼자서 키우게 된다. 주몽의 출생의 비밀이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생존을 위한 타의적인 것이었다면 유리의 출생의 비밀은 영웅 아버지로 인한 예소야의 자의적인 것이었다.

성장 과정 속에서 아버지가 부재한 것은 주몽과 유리가 동일하지만 주몽은 왕자로서 풍족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스승의 형태로라도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아 건국 영웅이 되는 반면, 유리는 스스로 아버지를 찾아갈 때까지 어떠한 정보도 알지 못한 채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며 힘들게 성장하였다. 아버지가 없었다고 해도 주몽은 금와를 아버지라 여기며 자랐고, 또 친부를 스승으로 모시는 영광을 누렸기 때문에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는 놀림을 받으며 자란 유리와 매우 대조적이다. 따라서 주몽과 유리의 출생의 비밀이 모두 함께 극적 아이러니를 만들어내어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지만 그것이 해결되는 과정에 대한 절실함은 주몽 보다는 힘들고 어렵게 자란 유리에게 더욱 기울어지게 되고, 이것이 유리가 주몽의 아들로서 고구려의 왕자로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만든다. 생부를 찾아간 유리가 아버지와의 첫 대면에서, 해모수가 끝내 주몽에게 하지 못한 말, “내가 네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 주몽 앞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 “허면 어이해 어머니와 저를 버리셨습니

까? 어이해 어머니와 저를 그토록 참담하게 살게 하셨습니까?”(77부)라며 따지듯 묻는 것은 그만큼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고통을 온몸으로 받으며 자란 유리의 괴로움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왕을 아버지로 두었음에도 고생하며 자란 유리는 그 성장 과정의 어려움을 통해 시청자들로부터 많은 동정과 연민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작품 전체를 놓고 볼 때, 극적 긴장감은 친부를 몰라본 채 그저 스승으로만 모시던 해모수와 주몽의 관계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해모수와 주몽이 함께 만들어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며, 유리와 주몽은 상대적으로 부자관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특별한 공유의 사건이 없어서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킬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주몽에게 출생의 비밀은 혈통의 정당성과 대업의 명분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유리에 출생의 비밀은 왕자로서의 혈통을 확인하여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② 성장 서사의 대물림

이 작품의 주인공이 주몽인 만큼 주몽이 영웅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그렸기 때문에 주몽은 어려서부터 모든 행적이 시청자들에게 공개되어 있다. 그만큼 시청자들은 주몽의 성장과 감정 변화, 개인적 내면의 복잡한 심정들에 동일시를 느끼면서 인물에 몰입할 수 있었고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인정하게 된다. 이에 반해 유리는 예소야의 품에만 안겨 있던 어린 아이의 모습에서 15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청년의 모습으로 불쑥 나타났기 때문에 그 세세한 성장 과정이 생략된 채 처음부터 특별한 성격의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자신의 인생을 좌우할만한 스승의 존재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조력자 없이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는 유리는 분명 어리버리한 성격에서 건국 영웅으로 성장한 주몽과 대조적인 면을 보인다. 그러나 주몽의 성장 서사가 건국 영웅의 현실성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면 유리의 서사는 주몽의 적통자로서의 입지를 전제하기 위한 장치로

그 기능을 하고 있다.

청년 유리는 친구들과 싸움을 일삼고 다니지만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강하고 친구들과 간의 의리를 중시하는 인물이다. 그가 지닌 남다른 능력은 다른 누구보다 싸움을 잘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소해 보이는 능력이지만 유리가 주몽을 만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아버지가 숨겨놓은 칼 조각을 찾기 위해 부여궁으로 들어가기에는 유리가 미천한 신분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대소의 왕 위 즉위식을 기념한 비무대회는 유리의 힘으로 궁으로 들어갈 명분을 만들어준다. 비류 왕자와의 결전에서 우승한 유리는 자신의 힘으로 당당히 호위무관의 직분으로 궁에 입궁하게 되고 어머니가 단계적으로 알려주는 과제들<sup>30)</sup>을 제 힘으로 풀어내어 아버지의 징표를 찾아내게 된다.

자신의 능력으로 아버지와의 부자관계를 회복한 유리는 이미 그 전에도 왕자로서의 면모를 손색없이 드러내는데, 그 하나가 비류 왕자의 상단을 습격할 때 비류 왕자를 살려준 것으로,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정한 인물이 아님을 강조하는 대목이고, 앞으로 일어날 유리와 비류와의 첨예한 대립에서 결코 끝장을 볼 성격이 아님을 예시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비무대회에서 우승한 점인데, 부분노 장군에게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은 비류를 이길 만큼의 뛰어난 무술 실력은 신궁 주몽의 뒤를 잇기에 손색이 없는 능력이며, 특히 비류와의 경쟁에서 먼저

30) 예소야는 주몽이 감추어둔 칼 조각의 비밀을 유리에 한 번에 이야기하지 않은 채 단계적으로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먼저 부여궁에 들어가는 임무를, 그 후에는 옛 유화부인의 처소에서 칼 조각을 찾는 임무를 수행하게 한 후 유리의 아버지가 주몽임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주몽의 전체 성장 서사에서 보이는 단계적 구조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형국으로, 주몽이 고구려 건국을 위한 신물 세 가지(다물활, 철갑옷, 청동거울)를 마치 롤플레이팅 게임의 아이템을 얻듯 찾아내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그려진다. 유리는 이미 청년이 되어 성장의 여지가 없지만 그가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과정 속에서 주몽과 닮은 단계적 임무 수행 서사를 사용하여 주몽의 영웅성을 많은 부분 이어받고 있는 것이다.

승리한 것은 앞으로 고구려 왕위를 놓고 전개될 유리와 비류와의 대결 구도에서 이미 유리가 능력 면에서 비류보다 우위를 점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탁월한 무술 실력에서 비롯된 유리의 능력은 고구려 황위를 잇는 적통 계승자로서의 의미와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주몽의 영웅으로의 성장 과정에 대한 시청자들의 동일시는 유리의 힘든 삶에 대한 연민으로 치환되면서 뛰어난 능력으로 대를 잇는 부자의 관계가 곧 고구려 황위 계승으로 확대되는 것이 주몽의 서사가 유리의 서사로 대물림되는 의미이다. 따라서 아무리 고구려의 태자로 훈육 받으며 성장하였다고 해도 비류는 특별한 능력으로 대표되는 주몽의 성장 과정을 유리처럼 대물림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연민이나 동일시를 확보하기 어려웠고 결국 주몽의 뒤를 잇지 못한 채 남하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고구려 건국 초기 권력 계승 문제에서 유리의 등장은 곤혹스럽고 첨예한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였음에 틀림없지만 드라마의 서사는 출생의 비밀과 성장 서사를 대물림하는 과정을 통해 유리의 정당성과 이에 대한 시청자들의 동의를 쉽게 이끌어내고 있다. 따라서 시청자들은 아버지에게 버려지는 것이 두렵다고 울부짖는 비류에 대해 동정을 느끼지만, 그렇다고 해도 유리가 고구려 태자가 되는 것에 특별한 반대를 하지 않는 것도 드라마의 서사 상에 배치한 주몽과 유리의 닮은 점 때문이다. 이처럼 해모수에서 주몽으로 이어지는 적통계승은 신화와 마찬가지로 주몽에서 유리로 자연스럽게 대물림되는 것이다.

## 2) 삼각관계와 강한 여성캐릭터

### ① 삼각 혹은 사각 관계

역사드라마에 멜로드라마의 요소들이 혼용되면서 인물들 간의 사랑이 드라마 속에서 흔하게 발견되는데, 그 구체적 실체는 역시 갈등을 유발

하는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몽>에도 다양한 삼각, 혹은 사각관계가 대를 이어 존재한다. 해모수와 금와, 유화는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다. 유화가 해모수에 대해 일방적인 호감을 갖고 있었고, 여자에 전혀 관심없을 것 같던 해모수도 유화에게 마음을 주는데, 금와는 해모수보다 유화를 먼저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가 심각한 삼각관계로 발전할 조건을 갖추었다. 그러나 해모수에 대한 금와의 감정이 친구와 동지의 것이었기 때문에 유화와 해모수의 사랑을 그저 바라보는 데서 이들의 삼각관계는 해소된다.

주인공인 주몽은 보다 많은 관계들을 형성하는데, 우선 부영이 등장하던 초반부에서 주몽은 사각관계의 주인공이 된다. ‘소서노 → 주몽 ↔ 부영 ← 오이’의 관계가 그것이다. 자신으로 인해 신궁에서 쫓겨나 고생하는 부영을 늘 안쓰러워하던 주몽의 감정이 반드시 사랑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한동안 부영은 주몽의 약점 중 하나로 역할을 했으니 주몽과 부영은 상호간 신뢰와 호감이 오간 관계로 볼 수 있다. 이때의 소서노는 주몽에 대해 호감을 갖기 시작할 무렵이었고, 오이는 부영을 위해 주몽을 배신할 만큼 좋아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서노와 부영, 주몽과 오이의 대결구도가 형성되면서 애정의 사각관계가 그려진다. 이 관계는 부영이 주몽을 위해 떠나고, 주몽과 소서노의 감정이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이 작품에서 중요한 삼각관계는 주몽과 대소, 그리고 소서노의 관계이다. 주인공들의 삼각관계는 시청자들의 관심을 끄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작진은 이들의 삼각관계를 위해 실제 역사와는 달리 소서노와 주몽의 만남을 매우 빠른 시기로 설정하였다.<sup>31)</sup> ‘주몽 ↔ 소서노 ← 대소’의

31) 주몽과 소서노가 만난 것은 정확하지 않지만 적어도 주몽이 부여를 떠나 졸본에 정착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 소서노는 사별한 남편 우태와의 사이에 비류와 온조의 두 아들을 두고 있었고, 주몽은 예씨 부인과 아들 유리가 있었지만 혼자 몸으로 부여를 떠났기 때문에 졸본에서 새로운 세력을

삼각관계는 그 당시 태자경합을 벌이던 주몽과 대소의 경쟁관계와 맞물려 의미가 확장되는데,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먼저 태자로 지목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두 사람이 능력의 경쟁뿐만 아니라 소서노를 사이에 두고 사랑까지도 경쟁하는 것으로 그려짐으로써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관계는 초반에 잠시 두 왕자를 저울질하는 듯하던 소서노가 주몽에게 마음을 정함으로써 주몽과 소서노가 연결되는 것으로 해소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대소의 소서노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해서 주몽이 실종되었을 때 기필코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계루를 건 협박까지 서슴지 않게 된다. 계루의 운명을 생각하면 대소의 양재가 되어야 하지만 소서노의 선택은 자신을 늘 지켜주던 우태와의 혼인이었다. 결국 주인공들의 삼각관계는 어느 한 쪽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끝나버린다.

소서노를 떠나보낸 주몽은 그의 첫 번째 부인 예소야를 놓고 또 다른 삼각관계의 주인공이 된다. ‘주몽←예소야←설탁’의 관계가 그것인데, 부상당한 주몽을 간병하면서 예소야는 주몽에게 분명한 호감을 갖는다. 거기에 비해 주몽은 이미 마음으로 정해둔 소서노가 있었기 때문에 보은과 책임감의 감정이 중심이 된다. 여기에 오랫동안 예소야를 자신의 사람으로 점찍은 설탁이 가세하면서 드라마의 공식적인 마지막 삼각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설탁이 예소야의 아버지를 죽이고 권력을 장악한 데다 원래부터 마음이 없던 예소야는 주몽을 따라 탈출하게 되면서 삼각관계가 정리된 듯하지만, 설탁이 예소야에 대한 집착으로 그녀를 납치하는 상황까지 만들자 주몽은 예소야를 구출해 와 자신의 부인으로 맞이하면서 삼각관계를 완전히 끝맺음한다.

---

확장하기 위해 과부이자 연상인 소서노와 결혼하였으며, 소서노는 막강한 재력을 바탕으로 주몽의 고구려 건국을 도운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역사서에 따라 비류와 온조를 주몽의 자식으로 보거나, 비류는 우태의 아들로, 온조는 주몽의 아들로 보기도 하여 이 역시 분명한 것은 아니다. 주몽과 소서노의 만남에 대해서는 김기홍, 『고구려 건국사』, 창비, 2002, 36~38면 참고.

각 애정관계에서 누구와 누가 맺어질 것인가는 시청자들의 주된 관심사이다. 따라서 삼각관계는 사랑을 중심 테마로 삼는 멜로드라마에서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모티프인데, 역사드라마에서도 시청자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실제 역사에 존재하지 않는 사랑의 관계를 다양하게 포진시키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그러나 이러한 애정관계가 있다고 무조건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고 소재가 된 인물과 사건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sup>32)</sup> 졸본 부여를 통합하면서 고구려 건국에 박차를 가하는 작품 후반부에는 삼각이나 사각의 애정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대업’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개인적 감정을 완전히 잃어버린 주몽은 죽었다고 생각되는 예소야와 유리에 대한 책임감과 회한만이 가득할 뿐, 첫사랑이면서 태황후의 자리로 다시 인연을 맺은 소서노와의 사랑의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어 오히려 서로의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인 듯이 비쳐진다. 따라서 유리의 등장 이후에 나타난 예소야→주몽←소서노의 관계는 두 여인의 일방적인 희생과 사랑만 그려질 뿐 고구려 태왕인 주몽은 두 부인들을 그저 측은하게 바라보는 무력하고 무감각한 인물이 되어 버렸다. 주몽이라는 건국 영웅을 그려내면서 멜로 라인을 중요하게 배치한 초반의 서사를 놓고 본다면 건국의 대의명분은 주몽보다 오히려 제작진에게 더욱 강박되어 있는 듯하다. 이러한 애정관계 서사의 소홀함은 인물 성격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전 드라마에서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여성 캐릭터를 구축하는 듯하다가 결국은 평범한 캐릭터로 머문 소서노가 대표적이다.

32) <불멸의 이순신>에서도 박미진과 초희가 등장하여 이순신과 애정관계를 형성하였으나, 국난을 극복한 영웅의 사랑이 시청자들에게 환영받지 못해 슬그머니 사라져버리고 이순신은 오직 영웅으로만 그려졌다. 이 작품의 여성 인물 형상화에 대해서는 윤진현, 「이순신과 영웅의 췌신-KBS 대하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14호, 대중서사학회, 2005.12. 20~21면 참고.

## ② 당찬 여성 캐릭터—소서노

사회적 신드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선풍적 인기를 끈 <내 이름은 김삼순>(MBC, 2005) 이후로 현대 드라마에 새로운 여성의 모습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하는데, 이른바 ‘당찬 여성’ 캐릭터가 그것이다. 사랑 앞에서 당당하고, 자신의 욕망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알며, 추구하고자 하는 꿈이 있고, 그것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당찬 여성은 현재의 여성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몽>에서의 여성 캐릭터도 이와 비슷한 면모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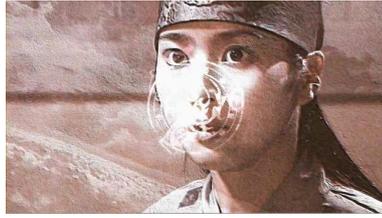
고구려 소재의 다른 역사드라마와는 달리 <주몽>에는 많은 여성들이 등장하는데, 부영과 예소야를 제외한 중요 인물들은 모두 당찬 여성들이다. 주몽에게 대업의 의지를 불어넣어준 강한 어머니 유화, 금와왕과 동등한 권력을 행사하던 신녀 어미울, 자식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대리만족하려는 권력 지향적 원후와, 원후의 젊은 모습으로 비춰지기까지 한 양설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여성 인물이 당찬 여성으로 그려지는데, 그 캐릭터들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 소서노이다.

드라마 속의 소서노는 지금까지의 역사드라마에서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여성상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 영웅을 형상화한 <대장금>을 제외한 역사드라마에서 여성은 아무리 강인한 성격을 지녔어도 남성 권력에 가려져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소서노는 주몽과 동등한 입장에서 그를 도와주고 함께 대업을 이루어나가는 연인이자 동지로 형상화된다. 소서노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인 연타발은 딸이라는 사실에 아쉬워하면서도 남자처럼 강하게 키워



<사진 9>

나라를 거래하는 큰 상인으로 만들 것이라며 스스로를 위안한다. 이에 따라 연타발의 의지대로 남성과 다를 바 없이 성장한 소서노는 작품 초반부에 많은 장면에서 남장을 하고 있다. 주몽과 시조산에서 처음 만날 때도 그러하였고(<사진 9>), 왕자로서의 주몽의 능력을 발견하는 대목에서도 소서노는 치마가 아닌 바지를 입고 있었다.



&lt;사진 10&gt;

총 81회가 방송되는 동안 주몽의 클로즈업된 얼굴이 엔딩 장면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지만,<sup>33)</sup> 그 중 소서노의 엔딩은 16부(<사진 10>)와 79



&lt;사진 11&gt;

부(<사진 11>)에서 등장하는데, 이 모두 여성스러운 소서노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남장을 하거나 전투복을 입은 남성적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소서노를 여성으로 그려내기 보다는 그 어떤 남성 인물보다 더욱 남성적인 존재로 이미지화하려는 제작진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실제 드라마의 서사에서도 소서노는 매우 배포가 크고 생각의 도량이 넓은 여장부로 그려지고 있다. 특히 작품 초반부의 소서노는 중성적 매력을 담고 있으면서도 주몽보다 탁월한 능력을 지닌 인물로 나타나는데, 상단 행수인 아버지를 따라 상인으로 훈육 받은 그녀는 상단을

33) 본 방송이 끝난 후 다음 편의 예고가 방송되기 전 약 10초간 주제음악을 배경으로 클로즈업된 얼굴이 고정되어 있는 엔딩장면은 시청자들에게 그 인물의 이미지를 견고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81부의 엔딩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역시 주몽이며, 그 외의 인물로는 금와, 대소, 유화, 소서노, 해모수 등으로, 이들은 모두 2회 혹은 3회만 엔딩 장면에 나타나고 있다.

이끄는 여느 행수보다 큰 배포를 지녀 어려운 거래를 성사시키는 능력을 보인다.

소서노의 능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은 드라마 초반부, 주몽과 고산국으로 소금을 얻기 위해 원행을 떠나는 부분이다. 고산국의 신녀가 아무에게도 소금을 내어줄 수 없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소서노가 앞장서서 거래의 담판을 짓는다. 또한 전쟁에 필요한 용병 확보를 위해 말갈족을 찾아갔을 때에도 타 부족에 대해 배타적이던 족장과 담판을 지어 원하던 결과를 얻어낸 것도 소서노이다. 이처럼 거래와 담판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지닌 소서노는 주몽에게 절대적 충성을 맹세한 의리의 3인, 오이, 마리, 협보도 해내지 못하는 일들을 지혜와 배포로 성취하면서 주몽이 위기 상황에 닥칠 때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주는 능력 있는 해결사의 역할을 맡는다.

특히 고구려의 건국 과정에 있어서 소서노의 역할은 대단히 크게 작용하는데, 본계산을 거점으로 한 다물군에게 새로운 땅과 엄청난 재정을 지원해준 것은 물론이고 부여와 한나라의 폐쇄정책으로 졸본이 고사할 운명에 달렸을 때 목숨을 걸고 식량과 약재를 구해와 위기를 타개한 점, 적대국인 부여에 사신을 자청하여 식량 지원의 허락을 청하러 간 것 등이다. 여기서 소서노는 누구도 해내기 어려운 과업들을 술선수범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이는 곧 주몽의 대업을 주몽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천해 내는 것으로 그려지는데, 실제로 소서노의 활약이 이처럼 두드러질 때 주몽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소서노의 무사귀환과 졸본의 안녕을 기원하는 천제를 올리는 정도일 뿐이었다.

이렇듯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주몽의 활약에 비해 행동하는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주는 소서노는 주몽과 동등한 지도자의 입장에서 졸본의 토착세력들을 대신하는 인물로 고구려 건국에 맞추어 주몽과 결혼하여 태황후가 된다. 이미 계류의 위기를 발판삼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졸본을 통합한 새 나라 건설의 준비를 도모하였던 소서노의 행동은

계류의 군장으로, 부족과 상단을 책임져야하는 지도자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지도자적 면모는 주몽과 대등한 위치의 태황후 자리로 손색이 없는 것이다.

강하고 당찬 여성 지도자로 그려지던 소서노의 성격에 균열이 본격화된 것은 유리가 등장하면서 부터이다. 주몽의 적



<사진 12>

자인 유리의 등장은 고구려 권력 계승에 커다란 파문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졸본계열인 비류 왕자를 황위에 올리기 위한 역모도 꾸며진다. 주몽태황을 무조건적으로 존중하는 소서노의 입장에서 권력에 대한 어떠한 대립과 분쟁을 허용치 않겠다고 했으나 그 역모의 이면에는 자신의 아들인 비류의 눈물과 좌절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소서노는 주몽을 위해서도 왕자들을 위해서도 필요 없는 분쟁을 만들기 전에 태황후 자리를 버리고 남하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한다. 운명적 상대로 평생을 사모한 주몽을 버리고, 힘들게 건국한 고구려를 떠나려는 소서노의 명분은 자식들을 위한다는 모성으로 집약된다. 즉, 한 나라의 지도자인 태황후로서 상황을 판단하여 행동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어머니라는 지극히 여성적 규범 안에서 남하를 결심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소서노는 사랑하는 주몽에게 더 이상의 고민을 안겨주지 않기 위해 아이들을 핑계로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포기하고 양보하는데, 이는 나라를 건국할 정도의 큰 배포를 지닌 여장부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업적 모두를 희생하는 평범한 여성 캐릭터로 변화된 것이다. 주몽은 자신의 어떤 것도 포기하거나 희생하는 바 없이 고구려의 태황후로 존재하지만, 그 배후에서 더 적극적으로 건국을 주도한 소서노는 주몽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비련의 여인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하를 결심할 즈음 소서노는 많은 장면에서 눈물을 흘

리고 있어 강렬한 눈빛을 뿜어내던 이전과 달라진 성격을 이미지로 공고화하고 있다(<사진 12>).

고구려 건국의 대업 앞에서 주몽은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전형화된 영웅의 성격을 보이는 반면, 당차고 강한 여성이었던 소서노는 주몽을 향한 애정과 자식에 대한 모성을 전면에 내세워 희생과 포기를 몸소 실천하는 여성이 되고 만다. 이는 작품 초반부터 중요한 서사로 배치된 애정관계가 고구려 건국에 의해 약화되면서 어떻게든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모성과 사랑이라는 안일한 해결책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제작진의 궁여지책에 의한 것이며, 이에 따라 기존 역사 드라마에서 발견하기 힘든 여성 캐릭터가 균열을 일으켜 결국은 평범한 여성 캐릭터로 변화된 것이다. 작품 초반처럼 애정관계에 좀 더 비중을 두었다면 고구려 건국 후 부부가 된 주몽과 소서노 사이의 애뜻한 감정 표현이 배치되었어야 하며, 소서노의 결정에 주몽이 보다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힘들어 했어야 했다.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소서노와의 애정관계를 초반부터 설정하지 않은 채 오로지 이해타산의 목적 하에 정략적인 혼인관계로 만들어 소서노의 남하를 보다 현실적으로 설득력 있게 그려낼 수 있었을 것이다.

비록 작품 후반부에 성격 구축의 균열을 일으켰지만 소서노는 강하고 당찬 현대 드라마의 여성캐릭터들과 닮아 있으며, 지략과 배포를 겸비한 여성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 드라마의 여성 캐릭터들을 뛰어넘는 새로운 여성 캐릭터임에 틀림없다. 남성 드라마의 전유물로 인식되고 있는 역사드라마 속에서 강한 여성 캐릭터의 등장과 활약은 인물들 간의 애정관계와 함께 역사드라마의 시청자층을 확대함과 더불어 현실의 여성들이 지닌 욕망을 대변한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의미를 지닐 것이다.

역사가 이미 흘러간 과거의 것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살아가는 현재와 거리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드라마 제작진들은 현대 드라마

의 다양한 관습들을 적극적으로 혼용함으로써 과거와 현재의 거리를 축소시키고 있으며, 이는 시청자들에게 친근함과 익숙함을 주기 때문에 드라마에 대한 관심을 배가시켜 정서적 동일시와 현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 낸다. 출생의 비밀과 애정의 삼각관계는 분명 현대 드라마에서 익숙한 것이지만 <주몽>에서는 주몽의 영웅으로서의 성장에 대한 적극적 원인으로, 고구려 건국의 대업을 달성하는 주된 모티프로 활용되고 있어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상상과 허구의 산물로 신성함이 절대화된 신화의 논리가 통하던 신화 시대, 그 시대의 건국 영웅서사를 기반으로 한 역사드라마 <주몽>은 신화의 논리를 현실적 논리로 형상화하기 위해 다양한 서사 전략을 사용하였고, 그 중심에는 주몽이 있었다. 신성한 영웅 서사를 평범한 인간에서 영웅으로 성장하는 영웅의 성장 서사로 현대화하였으며, 다양한 비주어의 활용을 통해 현실적 영웅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였다. 거기에 현대 드라마의 장르를 적극적으로 혼용하면서 역사이야기이지만 현대적 감수성을 담지하여 많은 시청자의 지지를 이끌어내도록 하였다. 결국 <주몽>의 서사와 이미지는 영웅 신화를 현대의 정서와 감각에 맞게 변형하여 드라마적 리얼리티를 확보한 것으로, 이것이 고구려를 소재로 삼은 다른 두 드라마, <연개소문>과 <대조영>에 비해 이 작품이 인기를 얻고 있는 중요한 이유이다.

#### 4. 맺음말-영웅 신화를 호출한 대중과 TV드라마의 결합

지금까지 TV드라마 <주몽>을 중심으로 건국 신화의 영웅을 현실화해 내는 서사 구축의 방법과 이미지 형상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신화의 신성성을 거두면서 그 대신 인간에 초점을 맞춘 주몽의 성장 서사는 시청

자들의 동일시를 확보하면서 많은 관심을 이끌어내었고, 카메라 촬영기법 등으로 구축된 주몽의 이미지는 현실성을 담지하고 있다. 또한 서사에 드러나는 다양한 현대 드라마의 모티프들은 시청자들의 친밀감을 유발하면서 먼 과거의 일이지만 마치 현실에서 일어난 듯한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여기서 다시 논의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주몽이 <연개소문>이나 <대조영>과는 달리 시청자들의 큰 지지를 얻은 것은 무엇보다도 ‘주몽’이라는 익숙한 소재의 선택이 큰 역할을 했다. 주몽보다 700년이나 뒤에 나타난 연개소문은 위인으로 다루어진 장군 중의 한 명이라는 정도의 인식, 대조영과 발해는 최근에야 우리 역사로 재조명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신화로서 이미 대중들에게 익숙한 주몽은 그 자체로 친근함이라는 장점을 통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던 것이다. 거기에, 신화에서 비추어진 영웅 서사를 현대적으로 변용하여 신화의 신성성을 제거하며 인간 주몽이 고구려 건국 영웅이 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어 신화 시대 속의 영웅을 현대적으로 호출하여 형상화한 점이 대중적인 성공을 거둔 것이다.

특히 드라마 속의 주몽은 기존 역사드라마에서 보아온 다른 영웅들과는 달리 강대한 나라를 세운, 건국이라는 거대 담론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땀방울을 유민을 이끄는 지도자로, 광활한 영토를 가졌던 고구려의 시조로, 강대한 이웃 나라에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승리를 거둔 영웅으로서의 주몽은 영웅으로의 성장 과정을 지켜본 시청자들과 대업 성취의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인물이다. 주몽이 지닌 이러한 면모들은 현실을 살아가는 대중들의 욕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 강대국 사이에서 국가의 안위를 걱정해야 하는 국제관계에서부터 믿고 따를만한 지도자와 이념이 부재한 현재의 정치 상황, 해결점을 찾을 수 없는 청년실업 등의 사회 문제, 극단화되어가는 개인주의 등 혼란하고 산만한 지금의 현실에서 과거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운 영웅은 그 자체로 대중들의 욕망에

대한 직접적인 대리자이자 답답한 현실의 돌파구이며 잠시나마 민족적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TV드라마 <주몽>은 끊임없는 역사왜곡 논란에도 불구하고, 신화 속 건국 영웅을 호출하여 현실의 문제를 벗어나고자 하는 대중들의 욕망을 기반으로 하여 그것을 TV드라마라는 장르에 효과적으로 결합한 작품으로, 인간적 면모를 강조하는 주몽의 성장 서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몽신화의 신성성을 현실성으로 대체하여 대중적인 성공을 거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작품은 모호한 동경의 세계인 신화를 시청각적으로 실감나게 이야기해주는 영상 기술 시대의 ‘새로운 이야기꾼’<sup>34)</sup>의 역할을 자처하였고 나름대로 효과를 거둔 것이다. 물론 이 작품이 신화를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한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 즉 부권으로 이어지는 적통계승의 이데올로기를 공고화하는 신화의 혈통중심주의가 드라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그에 따라 새롭게 형상화된 여성 캐릭터의 균열을 일으킨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그러나 신성함으로 가공된 신화를 TV드라마라는 가상의 장르 속에서 또다시 가공하되 시청자들의 현실적 동일시를 획득하였다는 점은 분명한 이 드라마의 장점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MBC 창사45주년 특별기획드라마 <주몽> 인터넷 홈페이지 내의 동영상과 사진 및 대본 자료 <http://www.imbc.com/broad/tv/drama/jumong>

34) 김태연, 드라마 <대장금>에 나타난 영웅 서사의 현대적 변용, 『한국어문학의 외국이론 수용양상』, 충남대 어문연구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2006.11.10, 322면.

SBS 드라마 <연개소문> 인터넷 홈페이지 <http://tv.sbs.co.kr/ygsomun>

KBS 드라마 <대조영>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bs.co.kr/drama/daejoyoung>

## 2. 단행본

- 김기홍, 『고구려 건국사』, 창비, 2002.  
 김문태, 『되새겨보는 우리 건국신화』, 보고사, 2006.  
 김용만, 『고구려의 발견』, 바다출판사, 1998.  
 김용만, 『고구려의 그 많은 수레는 다 어디로 갔을까』, 바다출판사, 1999.  
 박기수, 『애니메이션 서사 구조와 전략』, 논형, 2004.  
 박영규, 『한 권으로 읽는 고구려 왕조실록』, 웅진지식하우스, 2004.  
 오명환, 『텔레비전 드라마 사회학』, 나남출판사, 1994.  
 이형구, 『발해연안에서 찾은 한국 고대문화의 비밀』, 김영사, 2004.  
 일연, 이가원 · 허경진 옮김, 『삼국유사』, 한길사, 2006.  
 주창윤, 『텔레비전 드라마 : 장르 · 미학 · 해독』, 문경, 2005.  
 한혜원, 『디지털 게임 스토리텔링』, 살림출판사, 2005.

## 3. 논문 및 기타

- 김태연, 「드라마 <대장금>에 나타난 영웅 서사의 현대적 변용」, 『한국어문학의 외국이론 수용 양상』, 충남대 어문연구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2006.11.10, 322~341면.  
 배국남 기자, 「외국인도 아는 한국 드라마의 진부함」, 『마이데일리』, 2005.10.16.  
 윤석진, 「TV드라마의 현실성 확보방식 고찰」, 『한국극예술연구』 21집, 한국극예술학회, 2005.4, 317~355면.  
 윤진현, 「이순신과 영웅의 쇠신-KBS 대하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14호, 대중서사학회, 2005.12, 7~39면.  
 이영미, 「칼럼[야:한국사회] 주몽은 왜 앞머리를 내렸을까?」, 한겨레신문, 2006.12.25.  
 전호태, 「신화의 세계와 제의」, 『한국역사입문①』(한국역사연구회 엮음), 풀빛, 1995, 240~256면.  
 주창윤, 「텔레비전 드라마의 미학적 성격」, 『한국극예술연구』 23집, 한국극예술학회, 2006.4, 367~390면.

Abstract

A Study on the TV Drama *Jumong*

Bae, Seon-ae

MBC TV drama *Jumong* is the historical drama that makes subject on the Jumong myth and it hit the air 81th editing from May 15, 2006 to March 6, 2007.

*Jumong* was based on the myth of national foundation hero in the myth time that was admitted the logic behind myth of focused holiness. So, it used various methods to realize on the logic behind myth. The first, it makes a hero to a normal person and changed the myth of national foundation hero to growth story on a mediocrity. In ordered to this drama, Jumong was not gifted hero any more. He was an ordinary person in childhood, but he educated to his father, Haemosu and succeed to father's destiny about the great work of founding the Nation. Father's great work changed Jumong's character as an ordinary person to a hero and it leads to identify Jumong with the TV audience oneself.

The second, Jumong's image as a hero are made by various visual method, it included cloths, hair styles, and camera workings and so on. Especially, the scene of shooting an arrow is very activity by camera working, and it makes Jumong to holy bowman. The TV audience who watch this scene, believed Jumong as a national foundation hero. Also, Jumong's hair styles are changed by his character, and express his complicated mind. The description of *Jumong* uses some motives of modern TV drama(for example, secret of birth, love triangle, and strong woman character and so on) together with a historical drama story. The mixing on some motives of modern TV drama makes feel friendly towards the TV audience. And especially, strong woman character is the one of distinguishing mark of *Jumong*. In these women, Soseono was a representative woman, and she was configured

as a brave woman, as a heroin in *Jumong*.

keyword : *Jumong*, TV drama, a historical drama, the Jumong myth, growth story,  
strong woman character

접 수 일 : 2007년 2월 28일

심사기간 : 2007년 3월 1일~17일

게재결정 : 2007년 3월 17일